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7

화랑유원지 '미니정원'

# 브라보 안산

## BRAVO ANSAN

여름과 겨울사이, 가을  
사람과 자연사이, 행복



화랑유원지 '가을빛정원'





##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가다

### 나만의 작은 낙원을 만나자



안개처럼 아스라이 흔들리는 핑크몰리(분홍역새)와 화려한 색감으로 정원을 수놓은 작은 꽃길을 지난다. 나비가 한참을 머물다 가던 꽃밭 한가운데 멍하니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다. '정원, 도시의 숲이 되다'는 주제로 화랑유원지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33m<sup>2</sup> 규모 43개의 정원은 명상의 공간이자 놀이의 공간이었고, 추억을 재생하는 공간이었다. 관람객들은 작가와 시민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정원 안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잠시나마 심을 누리기도 했고, 함께 온 일행

과 정원을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작가 부문 대상 받은 이주는 작가의 '기도를 위한 회랑(Corridor for Pray)'은 중세 수도원을 모티브로 삶을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의 정원을 조성했다. 나무를 따라 길게 이어진 직사각형 통로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여러 문턱들을 지나 삶을 반추하게 된다.

피터팬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네버랜드, 네버랜드' 정원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었다. 보물상자와 목각인형 등 아가자기한 소품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미줄 모양 놀이기구와 종, 나무 굴, 작은 의자 등이 설치 돼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며 놀기 좋았다. 그 외 제주도의 오름을 소재로 자연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던 '오름, 나에게 말을 걸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낚은 콘크리트 돌담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억의 담'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참여정원들의 이야기가 화랑유원지 곳곳을 가득 채웠다.

시민정원사들이 만든 2m<sup>2</sup>의 미니정원 23개도 눈길을



끌었다. 이 중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작가들과 함께 만든 10개의 정원도 있었다. 바람과 별, 작은 새로 찾아올 아이들을 상상하며 만든 미니 정원에는 작은 그네와 의자가 놓여 언제라도 아이를 만나고 싶은 부모들의 그리움을 담았다.

화랑유원지 갈대밭이 있던 넓은 대지에는 만발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이 관람객을 맞았다. 박람회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정원들은 행사 이후에도 계속 화랑유원지에 곳곳에 남아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408)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안산시, 대부도에 도시가스 공급

### 주민의 주거환경, 상인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 크다

####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에너지타운 조성

안산시는 오는 11월 1일(수)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대부도 경제·관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내 방아머리부터 북동삼거리~구봉도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2018년에는 북동삼거리부터 대동초등학교, 영전마을 입구 등 대부도 주요거점에 설치를 완료해, 2018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들의 숙원으로 민선6기 출범 초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었다. 특히 2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대부포럼을 개최하며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연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숙박업과 요식업 등의 경영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높은 난방비 절감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나아가 2030년 대부도 인구 5만 명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수영 방아머리상인회장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대부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높은 연료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해의 대표 관광지인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부도 경제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해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선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대부도 경제·관광·산업인프라 구축의 첫발을 내딛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대부도 주민의 오랜 바람을 품고 시작된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위성지지는 내년까지 대부북동 1975번지에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민편익시설,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 팜 등을 포함하는 '대부도 에너지타운'으로 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홍보와 관광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3911)

## 안산시,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일동·사이동·고잔동, 우수사례 발표하고 홍보 부스 운영 “주민자치의 꽃은 우리마을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



안산시를 대표해 일동, 사이동, 고잔동이 전남 여수시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다. 행사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

부과 전라남도도가 주최한다. 안산시는 주민자치 분야에 일동과 사이동이,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고잔동이 참석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일동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생태, 경제, 공동체·육아, 안전·주거 등 4개 분야에서 35개의 마을의제를 발굴했으며, 그 중 17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2개 사업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실' 운영, 공동육아 영차어린이집,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운영, 일동 100인 패밀리합창단 구성 등이 눈에 띈다.

'우리아이 좋은 사이'를 표방하고 있는 사이동은 과거 쓰레기매립장 있었고 현재는 8차선 해안도로로 나뉘어 물리적, 심리적 단결과 소통부재 등 단지와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상존했던 곳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마을 공동체를 부활시킨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소통의 다리'로 불리는 육교 정비사업과 도자기 문패 만들기, 쉬어가는 사이길 음악회, 마을신문 발행 등의 성과를 이뤘다.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고잔동은 상처와 아픔의 치유를 넘어 송고한 희망으로 나아갔던 지난 3년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공감과 치유를 위한 주민 힐링 캠프, 회복과 나눔을 위한 문화마을 사진전, 지속과 희망을 위한 된장사업과 문화마을 신문 발행 등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시에도 마을이 있고 더구나 갈수록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며 "내가 직접 가꾼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그 마을을 떠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마을의 발전은 곧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445)

## 2017 전국 마을박람회 &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 “나는 안산에 산다”... 도시마을 공동체에 대한 믿음 확인



자취를 생생히 담았으며, '마을여행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는 해설사가 함께하는 마을여행으로 관심을 끌었다. 어느덧 4년째를 맞이하는 세월호 이후의 공동체 활동들을 공유하고, 아픔을 넘어 치유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어 19일(목) 밤에는 화랑유원지 야외중앙무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충전 '기억과 약속의 밤'이 진행됐다. 유가족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이웃들을 잃은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국과 일본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마을 만들기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최순옥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은 "천천히 열심히 가다보면 도심에서도 마을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함께 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 그동안 이뤄낸 안산의 마을만들기 10년의 성과에 놀랐다."고 전했다. 2017 안산 마을공동체축제 한마당은 3일 동안의 기록영상과 안산 25개동 비전선언식, 폐막공연으로는 오션(OCEAN) 뮤지컬 갈라쇼를 마지막으로 다음을 기약했다.

◇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전국의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모이는 '2017 전국 마을박람회와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이 10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화랑유원지와 단원구청, 안산지역 도시마을 곳곳에서 열렸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경기도,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등이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안산 마을만들기 10년의 발자취', '세월호 이후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과 전시, 먹거리, 나눔장터 등 풍성하게 마련됐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4시,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됐다.

마을과 어린이, 생태, 역사, 주민자치, 쓰레기, 지역대학 등 테마별 전시장은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마을만들기의 발



##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 대상 '청년내일주택' 입주자 모집

-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5세대 -

안산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은 총 25세대로, 19일 모집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이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내는 조건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2734)

## 안산패션타운페스티벌 2017

- 도심에서 펼쳐지는 패션문화 축제 -

사동 소재 안산패션타운이 10월 28일(토)부터 11월 5일(일)까지 10일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역 상권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인기 가수 백지영, 개그맨 박수홍 등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할인행사도 마련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안산패션타운 주변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패션타운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가 지정한 특화거리로 상록구 사동 1530번지 일원에 120여 개의 브랜드가 모여 있는 패션거리이다.

◇ 문의 :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회(031-385-4007)





## 청년창업의 꿈

###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⑪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 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지니어스 매직' 열정, 성실함, 끈기로 꿈을 향해 한 우물을 파는 청년들

이은결, 최현우 등 유명 매지션(magician)들이 등장하며 마술이 대중화됐다. 관객들은 마술을 좀 더 가까이서 즐기기 위해 공연장을 찾거나 직접 마술사를 초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제1호 프로마술사인故이흥선 선생이 창단한 '알렉산더 매직패밀리' 출신인 '지니어스 매직'의 최영두 대표(35세)를 만났다. 그는 "풍선이 나 사탕 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소품을 들고 찾아가는 하우스매직 요청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재능을 찾지 못했던 그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보여준 마술에 매료됐고, 고등학교 졸업 후 홍대에 있던 마술 상설 공연장 '알렉산더 매직바'의 문을 두드렸다. 청소년 마술 비법을 전수받기까지 꼬박 1년, 마술에 대한 열정으로 출근길은 늘 설레었다. 5년이 지난 후, 1기 선배인 최현우와 함께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군 제대 후 동료 7명과 창업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동부산대 매직엔터테인먼트학과에 입학해 공부한 후 1인 기업으로 서울대공원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실패. 이후 최 대표는 공연과 교육을 함께 하는 사업 모델로

2014년 9월 마술학원 '지니어스 매직'을 시작했다.

지니어스 매직은 콘서트 형식의 일루션 매직쇼, 체험형 버블공연, 비주얼 퍼포먼스, 테이블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기업·관공서·지역축제 등 전국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또, 학교 방과후 활동, 과학마술, 진로특강을 비롯해 흡연·성폭력 등 예방 캠페인도 한다.

지니어스 매직은 자체 마술도구를 개발해 쇼핑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장갑에 달아도 터지지 않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비눗방울 용액, 이어폰을 꽂으면 음악이 나오는 카드 케이스, 손을 대면 울리는 시계 등을 제작했다.

최 대표는 한양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공연 엔터테인먼트 과정을 공부하면서 청년큐브 한양캠프에 입주했다. 그는 "쇼핑몰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 청년큐브에서 플랫폼 홍보 기회를 얻고, 마케팅 등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이런 공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지니어스 매직(www.g-magic.co.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기획 제2의 청년기, 시니어 "우리도 일해요"

## 안산시니어클럽

## "일을 통한 노인복지 실현... 건강한 노후 즐겨요" 실버마케터 사업단, 직접 제조한 기름·된장 등 상설 판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제활동을 통한 만족감은 어르신들의 행복증진으로 연결된다.

안산시니어클럽은 '일을 통한 노인복지 실현'을 모토로 어르신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난 2008년 4월 8일 설립됐다.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안산시니어클럽에서는 올해 약 20여 개 사업에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 9개, 시장형(창업, 취업) 11개를 포함 총 20개 사업과 고유사업(신토불이 유통사업), 특화사업(시니어인턴십) 등 총 22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익활동 사업은 실버순찰대, 노노(老老)케어, 지역아동지킴이, 보육교사 도우미 등 공공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포함하며, 시장형사업으로는 꽃빛공원휴게소(음식점), 명품기름, 실버아파트택배, 신토불이두부마을, 장수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상록구청 경제교통과와 업무협약을 체결, 시니어 불법 주·정차 지도·계도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실적도 우수하다. '201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신토불이두부마을', '꽃빛공원휴게소' 사업이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됐으며, '시니어인력풀센터' 사업은 인력파견형 성과진단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뽑혔다.

최근 추석 명절에는 명품 기름, 유과와 함께 신토불이유통(재래된장, 견과세트 등), 차곡차곡 떡빵(송편, 깨강정 등) 등을 판매, 수익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니어클럽 실버마케터 사업단은 현재 7개 장소에서 기름과 된장 등 직접 제조한 제품을 상설 판매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니어클럽(031-401-8181)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한마음아파트 부지에 행복주택 건설한다 지상 17층 3개 동 286세대... 3년 후 준공 예정



여성노동자 기숙사로 사용 중인 단원구 선부동 978번지 한마음아파트가 사회 여러 계층에게 평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한마음아파트는 지난 2015년 시설물안전진단 결과 재건

촉 등의 개선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6년 9월 안산 서부지구 행복주택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같은 해 11월 추진 방안 및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1월엔 본예산 자본금을 확보,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까진 마친 상태다.

오는 10월까지 사업계획 및 타당성 보고 및 승인이 안산 시와 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2018년 3월 경기도의 공공주택 사업 신청 및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착공은 2018년 8월 예정이며 2020년 10월에 준공과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총 면적 5,929.9㎡에 추정사업비 329억(건설비용 200억 원, 운영비용 129억 원)의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건설기간을 거친 후 2020년부터 2059년 12월까지 총 40년 동안 운영된다.

지하1층, 지상17층, 3개동 규모로 286세대(전용면적 18㎡ 244세대와 전용면적 36㎡ 42세대)로 입주대상자는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소외계층에도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2000년 이후 전세비율이 19.6% 감소하고 월세비율이 14.5% 상승했으며 취약계층 거주비율은 4.4%로 경기도 평균 0.9% 대비 약 5배 높은 실정이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은 전국과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 4.7%에 불과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안산시민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031-481-4936)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2017 안산시 복지정책포럼 개최

###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실현 모색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복지'를 주제로 하는 '2017 안산시 복지정책포럼'이 안산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19대 정부가 슬로건으로 제시한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실현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1부 기초발제를 맡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회' 오건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중 보건 의료로 비유해 관리는 획기적이나 완전 백만 원 상한제는 제한적"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서는 3대 독소 조항을 해결해야 하며, 국민연금 대체율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의 복지사업 대응 예산과 중앙정부 복지에 따른 지방정

부의 재정 전망에 대해 말하며 복지국가를 위한 담대한 조세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2부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정확한 분석과 재원마련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복지정책과 이해숙 생활보장팀장은 "어느 계층이나 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대상자가 없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관심을 두고 각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이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안산대학교 김태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관이나 인력에 관심을 둔 것 같지는 않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돈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장애포복지관 박상호 관장은 "복지정책은 결국 조세정책과 그 제도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차원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865)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단원보건소, 스마트 운동 처방실 구축

### 전국 최초...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IT기술과 운동이 결합된 온핏(OnFit) 스마트 운동 처방실을 구축, 지난 9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운동 처방실은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기초 체력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것으로, 운동 처방에 따라 트레드밀 및 바이크 등을 통해 지능형 유산소 운동을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운동 초보자 및 노약자, 여성들을 위한 저강도 근력

운동기 6종도 함께 설치했으며, 주민 스스로 체지방이나 고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케어존(self-care zone)도 이용 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첨단 스마트 복합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단원보건소를 기점으로 전문 인력과 IT기술 및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한 스마트 운동 처방실을 구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해서 건강 커뮤니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81-3493 (단원보건소 운동처방실)로 상담·접수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493)



## 4.16 시민교육 프로그램, 11월1일부터 4주 동안 열린다



안산 곳곳에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흔적이 남아있다. 아이들이 놀던 공원, 매일 지나던 골목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던 학교. 참사 후 3년, 기억은 조금씩 흐려져도 역사와 기록은 변하지 않고 남는다. 4.16기억교실은 그 대표적인 공간으로, 단원고에 멈춰버린 시간처럼 남아있던 교실 10개와 교무실을 지난해 8월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 이전해 마련했다. 4.16기억교실 1층 교육실에서 세월호의 기억과 다짐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와 김익한 명지대 기록학 교수가 맡았다. 3강은 김진경 교육평론가의 강의로 '4.16 이후 미래교육'을, 4강은 4.16작가기록단으로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집 두 권을 펴낸 김순천 르포작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마지막 날에는 단원고 희생자 오영석 군 아버지 오병환 씨의 진행으로 분향소와 단원고, 4.16기억전시관, 기억교실로 이어지는 '기억과 약속의 길'을 함께 걷게 된다.

4.16 기억저장소 이지성 소장은 "4.16이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계속 진행됐지만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참사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바랬던 기억을 되살리며 그때의 약속과 다짐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첫 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나눠 1년에 총 4회 실시할 계획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기억저장소(소장 이지성)가 주최하는 '걸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4.16이야기'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4주 동안 진행된다. 총 5강으로 이뤄진 강좌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기록이 가진 의미와 참사 이후 교육의 미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1강은 '4.16기억교실과 아이들의 꿈'이란 주제로 신대광 원일중학교 수석교사의 강의로 진행되고, 2강은 '4.16과 기억'을 주제로 이현정 서울대 인류학 교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산시 적금로 134 안산교육지원청 내 416기억교실 1층 교육실  
 ◇ 문 의 : 416기억저장소(031-410-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안산시, 4호선 7개 전철역에 안전도우미 배치

### 시민에게는 안전을, 참여자에게는 일자리와 보람까지 제공



반월·한대앞·중앙·고잔·초지·안산·신길온천역 등 안산을 통과하는 4호선 7개 전철역에 안전도우미가 배치됐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16일 '전철역 안전도우미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신체 건강한 안산시민 156명을 안전도우미로 뽑았다. 시범사업은 안산의 각 전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안전도우미는 4인이 한 조가 되어 주중과 주말,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4시간씩 3교대로 역내 안전사고를 막고 이용

시민의 편리를 돕게 된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간당 6,470원에 교통비·간식비 3,000원과 주·월차 수당이 더해지고 4대 사회보험이 제공된다. 주말근무자는 최저임금의 1.5배인 시간당 9,700원이 적용된다.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안전을 지키는 이 일이 더없이 소중하다. 근무가 끝나는 날까지 사명감을 갖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자주 전철을 이용한다는 시민 B씨는 "안전도우미 분들이 계시니까 든든하다."며 "보호받는 느낌까지 든다."고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철역 안전도우미 시범사업은 시민에게는 안전 파수꾼이 되어주고 참여자에게는 보람과 함께 일자리 제공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생명사랑센터는 지난달 19일 한국철도공사와 생명존중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 내 자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9)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58), 안산시 생명사랑센터(031-418-012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성과' 상가 공실률 감소... 약 407개 점포 부활했다



안산시 중심 지역상권 11개 권역 점포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올해 공실률은 8.86%로 전년 대비 10.8%에 비해 약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과 비교할 경우 편차는 더욱 컸다. 3년 전 안산시 중심 상권 내 점포 총 2만3천573개 중 2천550개가 공실이었으나, 올해는 점포수가 2만3천836개로 263개 늘어난 반면 비어 있는 점포는 2,111개로 439개가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상가 중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산패션타운으로 1.23%에 그쳤으며, 한대앞역(2.01%), 본오 먹자골목(2.61%), 선부 군사

광장(3.02%), 대학동 상가(3.97%)가 뒤를 이었다. 성포 예술광장(16.7%)과 고잔 신도시(13.56%)의 공실률은 다소 높았다.

안산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가 상가 공실률 감소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상인들의 의식 개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기가 진행 중으로 예술광장로, 선부광장로, 문화광장, 중앙동, 일동, 한대앞역, 초지동 등 7개 상권에서 370명의 소상공인들이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다. 또한 360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개별문제점을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상인들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 상인회 구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2015년 1개소 밖에 없던 상인회가 올해에는 7개소로 늘었다. 중소소매업 유통혁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 점포의 신장률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 비해 점포수는 106개에서 120개로 14개가 늘었으며, 월 매출액은 28억여 원에서 32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3.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며 "상가 공실률이 줄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 “숲의 도시, 안산에서 놀자!”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홍보 영상물 제작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향 안산'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에 눈길을 끌고 있다.

'숲의 도시, 안산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안산시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시 홍보영상물이다.

영상 속에는 최근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닉네임 '아롱이'(유튜브 채널 아롱다롱TV 출연자 이유리)와 아역배우 출신의 전문 연기자가 출연해 '숲의 도시 안산'을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안산의 자랑거리인 '안산구경(九景)'과 함께,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등 '우리가 사는 고향이 바로 숲의 도시'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주 시청 대상이 어린이들인 만큼 시각적인 그래픽을 가미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 영상물은 시청과 양 구청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시청각 자료로 활용되고, 안산드림TV(www.ansandreamtv.kr) 연계 채널인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검색어 '숲의 도시 안산에서 놀자'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영상제작 담당자는 "지역 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장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홍보관(031-481-3126)

## 안산 수영의 자랑, 이인국 선수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 수상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인국 선수가 10월 1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및 2017년 체육발전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을 수상했다.

체육훈장은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청룡장은故손기정(마라톤), 김연아(피겨스케이팅), 거스 히딩크(축구) 등이 수상한 바 있으며, 이인국 선수는 그동안 세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기보배(양궁)선수 등과 함께 영예로운 수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인국 선수는 2013년 '대한민국 인재상'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를 방문한 이인국 선수와 부모님께 "이번 포상은 안산시 체육분야 최고의 경사이고, 이인국 선수와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 ⑤ 농·축·임업분야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경제 안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잔치’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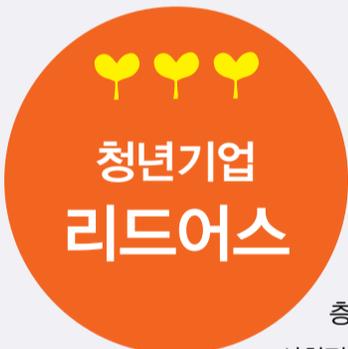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한마당 잔치가 10월 14일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안산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60여 업체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매와 체험활동 등을 통해 홍보했다. 참여업체는 요양복지사들의 협동조합 양지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생활원예연구회협동조합, 안산팝스오케스트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서비스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시민이 조합원이 되어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눈에 띄었다.

이날 한마당 잔치에는 사회적경제로 창업을 꿈꾸는 고등학생들도 참가했다. 안산공고 화공과 조대범 교사와 학생들은 달걀 노른자위 막에서 착안한 친환경물병 ‘오호’를 직접 만들어 보였다. 조대범 교사는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페트병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과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제품을 실험·실습하며 기업가정신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다.

상록고와 신길고 창업반 학생들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최현수)에서 운영하는 ‘토요 꿈의 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김승우 군(상록고2)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으며, 신길고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조합원이 되어 운영하는 교내 매점에 대해 소개와 함께 준비한 떡볶이가 행사 끝나기도 전에 매진될 정도로 솜씨를 보였다.

최현수 센터장은 “올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생긴지 10년,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 5년이 되는 해로, 사회적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마당 잔치를 통해 시민이 사회적 기업을 쉽게 접하고 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481-894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책으로 꿈을 전하는 청년기업 ‘리드어스’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생각을 살린다”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모였다. 2015년 7월 ‘우리를 읽자’라는 뜻의 청년기업 ‘리드어스(READ US)’를 창립하고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등지를 틀었다.

### 독서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는 여행

‘한 권의 책이 한 명의 생각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책을 통해 소외계층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리드어스의 안용재 대표(29세)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고아원·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부터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체험했죠. 성적에 맞춰 대학이나 학과를 정하는 친구들과 달리 가치관이 형성되고 신념이 생긴 후에 진로를 선택했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했다.

신학을 전공한 안 대표는 ‘안산YFC(청소년선교단체)’에 몸담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리더십을 지도했던 경험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으로 이어지며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대안학교 교사였던 이유정 간사와 함께 선부동 ‘다이나믹지역아동센터’와 본오동 ‘평강의집’에서 2년여 동안 독서교육을 해온 안 대표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보람을 느낀다. 의욕 없고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소방관, 축구선수 등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 그렇게 선택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고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어가는 독서교육은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생각이다.

리드어스는 독서지도와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도서 기부라는 사회적 참여를 이끌고 있다. 기부 받은 책은 필요한 시설에 기증하거나 중고도서로 판매



한다. 수익금으로는 소외계층을 찾아 교육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파손되지 않은 일반도서·아동도서·전문서적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과 연동된 오픈마켓에서 중고 도서를 구매하는 것으로도 도울 수 있다.

리드어스는 지역의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가게’ 형태의 오프라인 공간인 사회적경제 서점을 꿈꾸고 있다.

◇ 문의 : 리드어스(070-7795-0720 / www.readus.co.kr)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글로벌미션센터 최경식 목사

## “한 사람이라도 ...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이 사명”

21년째 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글로벌미션센터의 최경식 목사를 만났다. 그는 ‘가족과 같이’라는 특별한 사명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말을 못하던 외국인친구의 통역을 위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수술보호자가 됐고, 4시간동안 기다렸죠. 마취에서 깨어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 떠올린 사람이 나왔구나. 이 친구한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유일한 가족이구나.”

이후 최 목사는 이주민을 가족처럼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가 설립한 글로벌미션센터(원곡동)는 외국인을 위한 상담, 한국어 교실, 병원동행하기, 필리핀공동체 센터 등 이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운영철

학은 자립심이다. 받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울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지다.

쉼터는 직장에서 나와 지낼 곳이 없는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자립적으로 운영된다. 공공금과 월세를 스스로 나누어 부담한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예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신한다.

다시 사정이 좋아지면 도움 받았던 그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최 목사는 “이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이나 비자행정 문제보다도 삶이나 가정문제, 내면적인 생활위주의 상담을 중시한다. “아픈 곳을 만져주는 상담이 중요합니다. 고소나 합의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품은 적대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옆에 서면 자연스럽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으로.”

최경식 목사는 현재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원장으로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난 6월에는 외국인주민 정착공로 표창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문의 : 글로벌미션센터(070-8600-8040)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안산시그룹홈연합회, 상록수역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 · 청소

### “아픈 역사를 알아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

안산시그룹홈연합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키우고자 참여형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안산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념사업 ‘평화의 소녀상, 기억에 담다’에 참여한 것. 이 사업의 교육내용은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기위한 독서프로그램, 토론, 편지쓰기, 소녀상 주변 청소 등이 있다.

그룹홈은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이 해체되어 가정에서 보호·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룹홈 관계자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부분이 일본의 만행인 위안부 역사에 대해 막연하게는 알지만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교육과 책을 통해 미리 학습한 후 실제로 설치되어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마주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경험들이 아이들 뿐 아니라 선생님의 역사인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소녀상을 방문한 한 학생은 “할머니들의 행동을 보고 놀랍고 슬펐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군에게 잡혔으면 그냥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할머니, 앞으로 더 힘내세요.”라고 소감 편지를 남겼다. 이어 또 다른 학생은 “위안부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라고 소감했다.

한편, ‘함박웃음 그룹홈’을 시작으로 안산의 21개 그룹홈 시설들이 매주 2회 소녀상을 방문하게 된다. 그룹홈 학생들은 소녀상을 깨끗하게 닦고, 그 주변을 청소하며, 역사

에 대한 지적 접근은 물론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역사를 알고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배우게 될 것이다.



◇ 문의 : 안산시그룹홈연합회(070-7802-1360)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기획 ② 안산의 예술을 말하다



### 한국연극협회 안산지부 성정선 지부장

## “연극공연 이어갈 수 있는 연습실이 하나 있었으면”



한국연극협회 안산지부 성정선 지부장을 만났다. 성 지부장은 70년대 중반 연극계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배우다. 90년대 중반 안산에 내려온 후 연극협회 안산지부 활동을 이어오다 2005년부터 지부장을 맡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연극계에서 성 지부장은 '따뜻한 엄마 품' 같은 존재다. 40여년 넘게 연극을 해오며 상도 여러 번 받았지만, 명예 보다는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이가 드니까 TV에서도 만날 엄마나 할머니 역할로 나와요. 은퇴할 때가 됐지만 후배들 술 한 잔이라도 사주려 열심히 용돈 버는 거죠.”라고 말하는 성 지부장과 삶과 연극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Q. 연극협회의 활동을 소개한다면

매년 별망성예술제 개막 공연작을 각색한다. 올해는 무용과 퍼포먼스가 혼합된 공연을 준비했고 관객과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극 품바도 공연했다. 청소년연극제도 22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개 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 Q. 안산지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상도 많이 받고 늘 상위권에 든다. 이번에 31개 시·군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참가하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은상,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 예선에서 금상을 받았다. 2009년에는 '아버지의 나라'로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고 전국 대표로 나가

은상을 받았다. 경기도에서 안산연극협회 하면 “배우들이 탄탄하다”고들 한다.

#### Q. 연극의 매력이란

무대에서 연습하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 또 연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표현할 수 있고, 나의 다른 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 Q. 꿈이 있다면

제일 큰 바람은 연습실이다. 공연이 끝나면 헤어졌다가 다음 작품 할 때야 다시 모인다. 배우들도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연습실이 있으면 여러 작품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배우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 또,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들며 성장 할 수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안산시 일드림 사업단

### 구인·구직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장과 취업 취약층을 위한 무료 고용지원서비스가 있으니 눈여겨 살펴보자.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는 입주 업체의 95% 이상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불법파견 사용사업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 일드림 사업은 이러한 지역특성에 맞춰 구인·구직난을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 지원서비스로, 안산시와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구직자나 사업체 모두에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사업단은 안산시상하수도 사업소 4층에 있다.

구직자를 위해서는 취업준비부터 밀착 지원한다. 전화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업단을 직접 방문해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을 위해 상담받기를 권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직업상담사의 충분한 상담이 이어지고 이력서 작성과 면접실무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장과 연결되면 면접도 동행한다. 구직자의 공감을 위해 사업장 현장 사진을 제공하고 소음이나 작업환경, 업무강도, 업무내용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제공하여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이 된 후에도 노무사와 구인 매니저가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고, 협의가 가능한 것들은 사업주와 조율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던 구직자 A씨는 “구직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놀랍다.”고 했으며, B씨도 “실적 위주의 일자리 알선 서비스일거라 생각했는데, 구직자가 원하는 곳에 취업시키기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 하는 모습에 믿음이 간다. 정규직이라니 더욱 좋다.”고 말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안산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라면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인 일드림 사업단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 문의 : 일드림 사업단(031-405-1254)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 둔배미 배치기 소리가 신명나게 울린다 정조의 행차에 맞춰 단원이 붓을 든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가을을 맞은 거리 곳곳마다 다양한 행사들로 넘쳐난다. 안산도 마찬가지. 천년고도의 위풍에 맞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볼거리들이 풍성하다. 지방정부 주최 국내 최고인 단원미술제를 중심으로, 정조대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읍성문화제가 열렸고, 지역 무형문화제인 둔배미 배치기 소리는 경기도민속예술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제19회 단원미술제

## 보석 같은 작품들이 가을을 매혹한다 지방정부 유일의 미술공모전

### 전국 260여 명, 1천5백여 작품 응모... 수상작 전시

지난 1999년 첫 개최된 단원미술제가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 주최하는 유일무이한 미술공모전으로, 신진 유망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됐다. 대상 3천만 원을 포함, 총 상금이 6천7백만 원에 달해 국립현대미술관을 제외하면 국내 최대 규모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총 18명의 심사위원들이 3단계에 걸쳐 엄정하게 진행했다. 대상 김선혁 작가를 비롯해 20명의 역량 있는 작가들이 선정됐다.

이들 선정 작가들의 보석 같은 작품들은 오는 11월 4일까지 단원미술관 1,2관에서 전시된다. '두드림' 어린이미술공모전 수상작들도 미술관 내 상상미술공장에서 전시되며, 노적봉공원 둘레길에서는 환경미술협회안산지부 야외전시와 경기 아카이브프로젝트2016-2017 '안산을 기록하다'도 열린다.

단원미술제는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은 단원미술제에 대해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의 롤 모델로 만들어왔다."며 "문화 생산자인 작가나 기획자 중심이 아니라 그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주체자인 문화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에 단원미술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 공감의 표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원미술제가 안산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출한 성공사례라는 평가다.



### 단원미술제 알고 보기



문화의 숲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안산문화재단이 단원미술제를 중심으로 풍성한 미술콘텐츠를 만든다. 대중들이 부담 없이 미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선정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를 실시하고, 미래의 단원을 꿈꾸는 어린이 수상작품전시,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을 구성해 다양한 연령층이 미술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작품공모에서 작가공모!

한 작가의 작품 하나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작품공모의 성격은 작품 스펙트럼을 면밀히 살피기 어렵고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창작과정을 단순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다. 즉, 작품의 밀도, 맥락, 완성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작가의 작업과정을 엿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요구된다. 이에 단원미술제는 한 작가의 작업 화두를 살피며 작품의 흐름이 이루고 있는 메시지와 의미, 작품구성의 기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작가공모 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전환 3년째, 작가들의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작품 수준은 편차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 세월호, 예술로 승화하다

'세월호' 사건은 커다란 슬픔이었고 현재도 그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미술의 역할은 슬픔을 위무하고 승화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선정 작가의 일정 부분을 '안산 선정 작가'로 활애했다.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력을 키움으로써 예술을 통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 미술의 도시를 꿈꾸다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종이미술관, 대부도유리섬박물관, 정문규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및 예술기관들과 연결해 안산시와 대부도를 잇는 이른바 '가을엔 미술로 안산(가칭)'을 준비 중이다. 시민과 작가를 이어가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미술의 도시를 꿈꾼다.

◇ 문의 : 단원미술관 전시사업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제9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

## 정조 어가행렬 재현,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다

10월 21일, 안산읍성 관아지와 수암봉 공영주차장에서 '제9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이하 읍성문화제)'가 열렸다. 읍성문화제는 정조대왕이 안산읍성을 방문했던 것을 재현한 어가행렬을 시작으로, 안산읍성 복원 페스타(연회) '정조의 하룻밤', 휘호대회,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경로잔치, 안산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천년 안산 음악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민속놀이 체험마당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정조대왕을 비롯하여 정승·판서·장군·수행군졸 등 당시의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 시민체험단 100여 명이 참여한 어가행렬은 안산국제비즈니스 고등학교 취타대를 선두로 장상동에서 수암동 안산객사까지 약 1.5km에 달하는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황색 옷에 남색 띠를 두르고 머리에 초립을 쓴 취타대는 나발, 태평소, 팽과리, 북으로 임금의 행차를 알리며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경호를 담당하는 '나장'으로 참여한 손희권 어르신(80세)은 "아침 8시에 행사장에 도착해 분장을 하고 어가행렬에 참여했다. 옛 임금이 지났던 길을 걸으면서 나이 많은 내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산시민으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고 정말 즐겁다."고 했다.

안산객사 앞마당에서는 정조대왕이 관가 노비 연심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백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줄거리의 연극 '정조의 하룻밤'에 이어 '고유제'가 진행됐다. 천년 역사를 지닌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며 천지신명에게 행사의 개막을 고하는 제례가 끝나고, 객사 마당은 다시 과거시험장으로 변신했다. 안산관아와 관련된 시문을 명제로 열린 휘호대회에는 60여 명의 서예가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수암봉 공영주차장에서는 '천년 안산 음악회'라는 주제로 안산시립국악단의 공연과 사물놀이, 판소리, 퓨전국악, 경기민요, 국악 비보이 공연이 진행됐으며, 투호놀이, 코뚜레 던지기, 윷점보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마당, 먹거리 장터가 함께 열렸다.

안산시 관계자는 "가을단풍이 병풍처럼 둘러싼 안산동에 마을 박물관이 들어서고 내년엔 안산읍성 복원이 시작되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전통골목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읍성문화제의 의미를 복돋웠다. 마을 주민과 등산객들도 전통차를 마시며 안산읍성 탁본을 들고 안산객사와 관아지터를 둘러보며 내 고장 안산의 역사를 되새겼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안산문화원(031-415-004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  
'둔배미 배치기 소리'

안산 둔배미놀이보존회의 '둔배미 배치기 소리(이하 둔배미소리)'가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제21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2위)을 수상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경기도민속예술제는 전통 민속예술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존을 위해 2년에 한 번 열리는 경기도 대표민속축제로, 이번 행사에는 총30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안산 둔배미놀이보존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옛 둔배미포구(현 초지동)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대동놀이를 준비했다. 어부들이 어로 작업을 하며 부르던 배치기소리, 바다질소리, 성황당고사 등으로 구성된 둔배미소리가 그것. 이는 황해도 배치기와는 가락면에서 구분되며 경기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존·전승되고 있는 소리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각종 민속예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매년 성호문화제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둔배미소리는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2019년도에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안산문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둔배미놀이보존회를 통해 안산의 전통 민속놀이의 보존과 전승을 이어갈 것이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민속문

## 경기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



화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산 둔배미놀이보존회는 6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둔배미소리에는 50~60여 명이 참여한다.

◇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소식通 NEWS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의견 청취 공고**

-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

안산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청년주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규모는 207,410㎡로 향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 공문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2734)

**안산시 '2017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장려상 수상**

- 사이좋은 '사이동' 마을 만들기 사례발표 -

안산시는 지난 12일 고양 어울림누리에서 개최된 '2017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개 시·군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안산시는 '마을과 마을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좋은 사이동'이라는 주제로 참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주택단지 외 준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육교 환경정비사업과 마을축제, 에너지절약마을, 이웃과 나눔 등의 주민자치활동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문의 : 사이동 행정복지센터(031-481-5083)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소득 상관없이 급여의 30% 정도 본인 부담 -

기존 비급여였던 '난임치료 시술비'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 난임 진단 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 지원신청 후 시술을 받아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보건소를 방문해 결정통지서를 우선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소득에 상관없이 급여액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시술비도 추가 지원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6)

**2017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개최**

**가상현실 체험, 드론, 3D프린터 등 가족단위 '즐길거리' 풍성**



안산시는 10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스마트안산! 메이커 안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017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5회째로,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 체험부스와 함께 가상현실, 드론, 3D프린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 구성됐다. 또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경진대회, 공연 등도 펼쳐졌다.

'체험 및 전시부스'는 학교 과학동아리가 뛰어난 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현하는 안산 인벤션 기업전시, 과학실험 작품 전시공간인 우리학교과학클럽, 취약계층을 위한 로봇 체험, 한양대학교 캡스톤디자인, 청년메이커들의 창의작품 전시, 뉴스포츠 체험, 드론 제작교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 전시 등 120여개나 마련됐다.

'과학과의 만남'은 로봇과학자로 유명한 한재권 교수의 강연과 '2007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의 주인공 최정훈 교수의 '영화 속 첨단과학' 강연, 웨어러블

(wearable, 입을 수 있는) 로봇과학자 한창수 교수의 연구실 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재료화학공학과, 로봇공학과 등 5개 학과 공학 진로 설명회를 개최, 미래 대학생들이 장래의 전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제조혁신 4.0 데모 스마트공장 방문에서는 민관합동추진단의 송병훈 박사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물리가상시스템 등 최첨단 제조혁신 기술을 소개·시연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다양한 전자파동과 표준동 소개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표준과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환경페스티벌 '지구!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도 진행됐으며, 드론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드론 조종대회, 3D프린팅 활용 창작 대회 등도 실시됐다. 한편, 청소년이 리드하는 댄스, 보컬, 마술 공연, 아이언맨과 함께하는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선아트 등 재미있는 볼거리들도 운영됐다.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031-500-3039)

**학생들이 디자인하는 '숲의 도시, 안산'**

**공모전 수상작, 시청·의회·중앙도서관에서 순회 전시**



'숲의 도시, 안산'을 주제로 한 '2017 제10회 안산시 학생디자인 공모'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고, 6월에 마감했다. 고등부 294점과 대학부 101점 등 총 395점이 접수됐으며, 디자인 전문가 6인과 관련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받았다. 창의성과 심미성, 활용성, 공공성이 잘 표현된 작품 33점(고등부 16점, 대학부 17점)이 본선에 올랐고, 심사표에 의한 개별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가려졌다.

대상작은 심사위원 전체 회의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박영재 학생의 작품 '숲의 도시 안산 로고 디자인'으로 정했으며, 상장과 상금은 지난 9월 29일 단원구 신청사 개청을 겸한 시민의 날 수상식에서 수여됐다.

고등부 대상은 '은행잎이 빛나는 밤에'를 출품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2학년 강민주 학생에게 돌아갔고, 대학부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허건 학생의 '흐르는 물처럼(Like flowing water)'이 선정됐다. 100만 원,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됐다.

본선에 오른 모든 작품은 고등부·대학부 부문별로 금·은·동·장려상, 입선작으로 가려져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최호운 교사와 신안산대학교 김호 교수는 각각 학생들이 175점, 47점의 작품을 출품하도록 이끈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학생디자인 공모전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점에서 20점까지 수상작을 선정해 매회 1300여만 원을 상금 형태의 장학금으로 지급해 왔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돼 안산시 공공도서관에 배포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의회 사무국 1층 로비(10월23일~30일)와 중앙도서관(10월30일~11월6일), 시청 대회의실 앞(11월6일~13일)에서 작품전시회도 갖는다.

◇ 문의 : 안산시 도시디자인과(031-481-2635)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연극축제 'B성년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들의 일상과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다

청소년 연극축제 'ASAC B성년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2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 무리극장에서 펼쳐진다. 'B성년 페스티벌'은 청소년 희곡집을 발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4년 대학로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2015년부터 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다.

신동'의 박찬규 작가와 '목란언니' '게임'의 전인철 연출이 함께 했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우정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불공정한 경쟁에서도 불평 없이 어른들의 설계를 따라야 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의 일상과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을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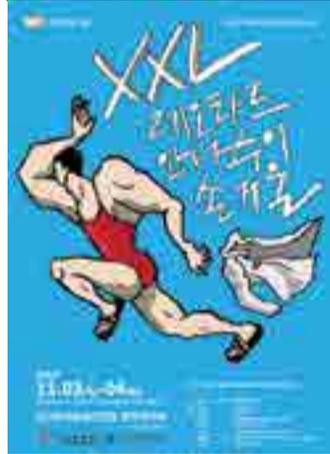
◆일시 : 11. 2(목)~4(토), 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8시/금요일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 자체 제작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2016년 안산문화재단 기획 공연으로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며 발전 가능성을 검증받은 작품이다. 청소년들이 주축이 된 농구단의 이야기를 명랑하고 유쾌하게 그렸으며, 11월초에는 한중일 베세토(BeSeTo)연극제 공식 초청작으로 중국 항저우에서 공연한다. 이후 11월 21~25일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청소년 맞춤형 공연으로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르며, 2018년 3월에는 대학로 아트원 씨어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일시 : 10. 20(금)~29(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일요일 오후 3시



### 무한경쟁 속 따뜻한 위로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로 10대들의 삶에 위로를 던져 주는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이 두산아트센터 공연을 마치고 안산을 찾는다. 이 작품은 '창

### 단막극 모음작 '우리는 함부로 자란다'

청소년기의 미세한 감각을 심화시켜 줄 4개의 단막극 모음작 '우리는 함부로 자란다'는 2015년부터 B성년 페스티벌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는 이양구 작가가 문예감독[드라마트루그(dramaturg)]로 참여했다. '재가 했는데요' '포에티카 비행사' '학교, 집 그리고 나' '청소년극 by 아지트 틴스'는 30대 젊은 창작진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작했다.

◆일시 : 11. 9(목)~12(일), 목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전 11시/토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일요일 오후 3시



◇문의 :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중앙도서관,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독서습관 만들고, 과학자를 꿈꿔요!”

안산중앙도서관이 하반기 어린이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열리는 유아 문화교실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0분씩 두 팀(5~6세, 6~7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하 동아리2실에서 열리며, 역사동화책과 함께하는 만들기 놀이가 주요 내용이다. 저학년(초등 1~3학년) 문화교실은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책과 함께하는 미술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어린이 문화교실은 책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시켜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한편, 오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10월의 하늘, 오늘 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라는 기부 강연도 준비했다. 이는 현직 과학자, 공학자, 의사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찾아가 자발적으로 과학 강연을 기부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현직



과학자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 참가하는 과학자들은 도시 어딘가에서 꿈을 꿀 기회를 얻지 못해 과학자의 미래에서 멀어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월의 하늘'이라는 명칭을 지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강연 기부자 및 진행자 등을 모아 전국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의 하늘'은 영화 '옥토버 스카이(October Sky)'에서 따왔다. 이 영화는 탄광촌에 살던 소년이 우연히 구소련의 로켓 발사 장면을 보고 로켓 공학자의 꿈을 키우다가 결국 시련을 극복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로켓공학자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031-481-270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경기도미술관, 한국-독일 현대미술 교류전

### ‘아이러니&아이디얼리즘’展…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순과 이상



말의 탈을 쓰고 전시장에 누워있는 미대생과 개의 탈을 쓰고 앉아있는 운전자, 전시장 바닥에 포즈를 취한 현대무용가들. ‘7시간 동안 전시장에 앉아있는 대가로 8만4천원을 받는다는 전직 화물운전자’, ‘작품 표현에 참여해 2백5십만 원을 받았다는 현대무용가’라는 안내 글까지 눈길을 끈다. 작품이 제작되고 유통되는 구조와 관람객의 인식을 예

리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김홍석 작가의 설치작품이다. 경기도미술관은 한국과 독일작가 8인이 참여해 현대미술의 동향을 선보이는 ‘아이러니&아이디얼리즘’전을 오는 12월3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유럽미술에서 세계적인 작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독일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내년 5월엔 독일 쿤스트할레 뮌스터미술관으로 옮겨간다. 서울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남화연 작가는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선보인 ‘욕망의 식물학’을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풀벌이 꽃을 탐하는 이미지와 오늘날 주식시장의 목소리를 병치한 영상을 통해 인간 사회에 내재된 욕망을 들여다본다. 우주의 신비에 관심을 가진 비온 달렘의 작품도 인상 깊다. 그가 표현한 정교한 우주는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술을 통해 시각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영환의 ‘걱정-서울 오후 5:30’은 분주한 삶 속에서 만나는 쉼표 같은 작품이다. 종루가 없이 하얀 의자로 둘러싸인 공간에 12개 사찰에서 녹음한 종소리가 울린다. 전시장 밖 테라스까지 확장된 이 작업은 관람객들을 밖으로 이끌어 삶속에서 만나는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경기도미술관에서 9월부터 무료로 전시되고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작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투어는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에 기획전시실 입구에서 진행된다.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7, <http://gmoma.ggcf.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제1회 안산 단원국제문화예술 영상제

#### 1인 미디어, 다채로운 콘텐츠의 꽃을 피우다



조선 후기 단원 김홍도가 그 시대 가장 인기 매체인 회화로 풍속·산수·인물을 그려 소통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1인 미디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안산문화재단 영화인협회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단원의 예술혼을 잇는 ‘제1회 단원국제문화예술 영상제’를 마련하고 ‘안산시 승격 31주년’, ‘6·25전쟁 발발 66주년’, ‘안전 불감증’을 주제로 극영화, 단편,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장르 구분 없이 작품을 공모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0작품이 응모해 영화감독으로 이뤄진 위원단의 심사를 받았다. 10월 21일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본선에 오른 9개 작품 소개와 대상(2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을 뽑아 시상했다.

제1회 대상에는 다큐멘터리 ‘안산애(愛) 산다’(여환수)와 단편 ‘관심’(김미리)이 선정돼 각각 상장과 상금 75만 원, 협찬사 제품을 부상으로 받았다. 여환수 씨는 “안산 자랑을 하려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대상을 주셔서 고맙다.”며 “안산시를 실제보다 나쁜 이미지로 보는 분이 많지만 안산시는 참 살기 좋은 곳”이라며 기뻐했다.

최우수상에는 다큐멘터리 ‘옆 동네 사람들’(김빛나래)과 단편 ‘도화’(이규진)가 선정됐고 상금 40만 원과 상품, 상장이 각각 수여됐다. 단편 ‘진우’(정시우)와 다큐멘터리 ‘시베리아, 시베리아’(라영수)는 우수상에, 극영화 ‘압화-봄을 기다리는 방법’(이수지)과 다큐멘터리 ‘시민과 예술이 하나 되는 곳’(김영기), 다큐멘터리 ‘대한늬우수-너와 나의 반세기’(윤추자)가 장려상에 선정돼 각각 상금 20만원과 10만원, 상장,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차성민 영화인협회 안산지회장은 “감명 깊고 새로운 작품이 많았다.”며 “이번 영상제를 통해 전국의 영화인이 안산에 모이고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참여하는 대회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상작들은 홈페이지 [www.Dicff.co.kr](http://www.Dicff.co.kr)에 게시된다.

◇문의 : 안산 단원국제문화예술 영상제 사무국(031-485-384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다문화 복합 문화공간 ‘글로벌 제이 아트홀’

####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예술이 된다



‘젊음의 거리’ 중앙동에 국내 유일의 다문화 복합 문화공간 ‘글로벌 JEY 아트홀(이하 J아트홀)’이 들어섰다. JEY(Jubilant Exotic Youthfull)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색적인 것이 가득한 공간’으로, 내·외국인의 이색적인 콜라보 공연을 육성하고 발표하는 곳이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전은영 대표(52세)는 리바이스, 삼성 전자 등 TV광고 100여 편을 기획·제작했으며 김건모 콘서트와 청룡영화제·대종상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를 기획·연출했다. 또 영화 ‘쉬리’와 ‘은행나무침대’의 마케팅과 제작에 참여했으며, 직접 영화사를 차려 ‘페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후 부모님이 사는 안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및 CEO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교육하면서 다문화인들과 교류했다. 전 대표는 “안산은 다문화 대표도시지만 재능 있는 다문화인들이 시민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교회에서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된 난타그룹을 창단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인을 위한 예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지역예술이 활성화된 관광도시 안산이 최적지”라고 했다.

J아트홀은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백화점, 아웃렛과 인접한 곳의 지하 약 400평 공간에 대극장, 댄스홀, 연습실 10개와 전시 공간, 세미나실, 창작공간을 마련했다. 연습, 공연, 음식이 한곳에 있는 복합공간이자 문화 소외층인 다문화 예술인의 표현 공간이기도 하다. 예술인과 외국인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콘텐츠 개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공연을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펍(Pub)도 있다. 낮에는 맛있는 요리와 커피 한 잔, 밤에는 다양한 인터내셔널 푸드와 한국식 퓨전 요리도 제공한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에서는 금·토요일 저녁 7시·9시에 아프리카 재즈와 켄베 공연을 하며, 매일 저녁 9시에는 통기타와 노래, 색소폰과 피아노가 연주된다. 전 대표는 “문화·예술·관광이 접목된 핫 코어 플랫폼이 되고, 대학로 소극장처럼 언제든지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글로벌 JEY 아트홀(031-405-533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문의 : 안산 단원국제문화예술 영상제 사무국(031-485-384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광장으로 나온  
도서관,  
시민과 함께  
가을별에 영글다

## 제7회 도서관 책 문화 축제&안산시 평생학습박람회

올해로 7회를 맞는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10월 14일 '안산시 평생학습박람회'와 함께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인 북 스타트 홍보와 함께 북 스타트 자원 활동가들의 책 놀이와 북 시어터 공연을 준비했다. 낙엽으로 가을나무를 꾸미는 아이, 나무와 풀이 튀어나오는 팝업 북을 만드느라 바쁜 초등학생, 세계 전통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함께 즐거워했다.

평생학습박람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코딩교실, 가상현실(VR) 체험과 3D 프린터를 시연하는 '세상을 인쇄하는 3D 세상'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체험존이 인기였다. 오유진 학생(진흥초 4)은 "실을 꼬아서 만드는 드림캐처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좋은 꿈을 꾸도록 도와준다는데 제 방에 걸어 놓으려고요."라며 즐거워했다.

집에서 잠자던 책들이 다른 독자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기부가 되는 책방 '리드어스', 아이

들이 예쁘게 색칠한 희망 엽서를 시리아 난민에게 전하겠다는 '그리샵' 등 훈훈한 부스도 많았다.

'열린무대'에서는 '안산의 서재' 퍼포먼스와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과학칼럼니스트 원종우의 '4차 산업혁명과 우리아이와의 관계', 심용환 역사작가의 '책과 함께하는 우리역사' 강연과 김연수 소설가의 '북 콘서트'가 이어졌다.

북 콘서트에 나온 김연수 작가는 "소설 쓰는 일은 결국 인생을 닮았다."며 "이야기의 본질이 시련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의 연속인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주어진다. 이런 역경을 이겨내야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교훈이 되어 새로운 시야를 넓히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449), 안산시 중앙도서관(031-481-386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h1>11 Culture Calendar</h1>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p>2 <b>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b> 일시 11.2.(목)~11.4.(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3 <b>무용 &lt;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gt;</b> 일시 11.3.(금)~11.4.(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5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p>7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p>8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p>9 <b>우리는 함부로 자란다</b> 일시 11.9.(목)~11.12.(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10 <b>우리는 함부로 자란다</b> 일시 11.9.(목)~11.12.(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11 <b>가족뮤지컬 '벋잇고'</b> 일시 11.11.(토)~11.12.(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제19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일시 10.13.(금)~11.4.(토) 장소 단원미술관</p>	<p>평생학습포럼 '통(통)큰시민교육 톨아보기' 일시 11.3.(금) 14:00~16:30 장소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미래관 1층</p>	<p>21 <b>전설의 리틀농구단</b> 일시 11.21.(화)~11.25.(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22 <b>나눔으로 행복한 안산시 안산시-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방송모금</b> 일시 11.22.(수)14:00~16:00 장소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p>	<p>16 <b>KBS교향악단 오페라 토스카 콘서트탄데</b> 일시 11.23.(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17 <b>KBS교향악단 오페라 토스카 콘서트탄데</b> 일시 11.23.(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18 <b>크리스마스 칸타타 2017</b> 일시 11.18.(토)~11.19.(일) 시간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안산시청소년정책토론회 '톡톡튀는 Talk! Talk! Season2' 일시 11.3.(금) 17:00~20:00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p>		<p>28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p>29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p>30 <b>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배 3on3 농구대회</b> 일시 11.5.(일) 장소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p>		

## 산업단지에는 부는 문화의 바람 문화재단, 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주관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이후 무엇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안산스마트허브를 벗어나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도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취미를 즐기며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다.”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프로그램 관계자의 바람이다. 문화재생사업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 및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와 협력의 지속성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산업과 문화의 만남을 실천하기 위해 안산시가 지원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판화와 도예'로, 업무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생활예술을 통해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활력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판그림으로 새기는 안산, 판화'는 안산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공간, 건축 등 대표 이미지를 주제로 쉽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 볼록판화(고무판화) 작품을 만든다. 수업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안산산업문화창작소(공단지원회관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물조물 생활자기 만들기, 도예공방'은 접시, 컵, 주전자 등 생활자기 만들기 프로그램



으로 수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문화재생사업 참여 프로젝트로 전시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총 16회 진행된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올해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으로 노동자 아카데미 '예술 풀이'와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 인 팩토리(Art in Factory)'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6)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효(孝)와 인성(人性)을 강조하다 포럼 개최...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전통문화”



제2회 안산시 효인성포럼이 지난 9월 27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경기효인성교육문화원과 경민대학교가 주최·주관했고 ㈜KT동안산지점,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참안산사람들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는 효인성교육 기관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2016년 4월 효행장려에 관한 조례, 같은 해 12월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며 효와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해 행사 관계자는 “인성이 실력이고 밑바탕이다. 바른 인성을 갖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효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산시 효인성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효인성교육문화원은 ‘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 관계자는 “효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전통문화이다. 널리 퍼뜨려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효 포럼을 통해 안산시 효행장려조례를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안산시의 문화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효인성교육문화원은 안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법인(2016. 04. 20 시행)으로 반월초, 창촌초, 호원초 등 10여 개 초등학교와 브니엘아동센터, 늘푸른아동센터, 본오중 등에서 효·인성 강의를 진행했으며, 성포고·강서고 위탁교육, 2016년 안산시청 ‘효인성교육’ 위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에서 효행교육지도사와 인성교육지도사를 양성하기도 했다.

◇문의 : 경기효인성교육문화원(031-417-6697)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청년큐브 신규캠프 입주자 모집 초지동 큐브 '시네랩 안산' 40개 창업팀 선발

안산시가 청년큐브 신규캠프 '시네랩(CineLab) 안산'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초지동에 위치한 '시네랩 안산'은 13년 동안 비어있던 구 영화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약 780평 규모의 복합 창업공간이다.

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28일 동안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일반(개별) 창업 20실, 개방형 창업 20여실 등 총 40개 팀 내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나이 제한 없이 전 연령을 대상으로 모든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다. 우대 분야와 입주자 지원사항 등은 공고문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1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청년큐브 2개소 30실의 창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0개 팀 106명이 입주해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4억7천4백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이번 초지동 캠프가 문을 열면 안산의 청년큐브는 모두 3곳이 되고, 70개 팀 약 230여 명의 입주자들이 창업 공간을 지원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문광고, 포털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캠프는 현재 구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설계용역을 진행 중으로 설계 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11월말 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절차 및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의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담당자(☎031-492-9948)에게 문의하면 된다.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도예 동호회 '토닥' 신명나는 물레 교육과 분청자기 만들기



오후 7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작은 도예공방. 근무를 마친 직장인 10여 명이 모여 빙글빙글 물레를 돌린다. 손에 힘을 실어 중심을 잡아주고, 흙을 올리고 내리길 반복한다. 나란히 붙인 두 엄지손가락을 직각으로 내려 안을 파고 그릇 모양을 갖춘다. 굽을 깎고, 분청을 칠하고 무늬를 넣어 가마에 두 번 구워 비로소 나만의 작품을 완성한다.

도예 동호회 토닥은 안산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신명나는 물레교육과 분청자기 만들기'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안산시민이 우리의 전통문화인 도예를 접하고 체험해 자신만의 작품까지 완성해보는, 문화의 맥을 잇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박선자(50) 씨는 "흙을 만지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다보면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낮에 일로 받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또한 내가 만든 도자기를 식기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확 줄이게 됐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교육은 흙의 성질을 알고 물레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컵, 작은 꽃병, 차 사발, 차 주전자, 작은 접시·큰 접시, 작은 항아리·큰 항아리를 만드는 14회 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마친 회원들은 오는 12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교육 총괄 서기열 강사는 "처음에는 간단한 그릇을 만드는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고난도의 도예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1년 정도 상시 무료 수업에 참여해 수련하면 도예 체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쌓인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와동 '마을숲 작은도서관' 놀이터 축제 동네 사랑방과 주민이 함께 하는 소소한 즐거움



아파트 단지에 비해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이 쉽지 않고 오래된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은 와동, 고잔동에 최근 문을 연 '마을 숲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소통할 만한 문화공간이 필요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됐으며, 마을 아이들은 수시로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읽었고 역사논술, 토론활동, 마을 탐험지도와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어른들은 프랑스 자수, 그림책 제작, 보드게임 활동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마을공동체의 소중함도 일깨우며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마을숲 작은도서관'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마을에서 다 같이 소소하게 돌아보자는 취지로 10월 15일 '놀이터 축제'를 열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그동안 주민들이 참여했던 성과물들을 나누며 마을 전체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은총(상록중 3) 학생은 "친구들이랑 만나면 주로 PC방을 가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축제에서 만나고 보드게임도 하니 더 즐겁고 재미있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도서관의 그림책 제작과정에 참여한 주민 김미숙(고잔동) 씨는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감정들이 꼭 살아있는 대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걷던 마을길과 늘상 보던 건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전했다.

◇ 문의 : 마을숲작은도서관(031-401-894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양지초 어린이들, '이웃과의 나눔'을 체험하다 직접 준비한 장터 개최... 음식, 장난감, 책 팔아 기부금 마련

양지초등학교 1학년 복도가 시끌벅적했다. 갖고 싶던 친구의 딱지를 싸게 사려 흥정하는 소리, 직접 만든 김밥을 팔러 배달하는 발걸음에 기쁨과 설렘이 가득하다. 지난 10월 20일, 양지초등학교 1학년 각 교실에선 '나눔 장터'가 열렸다. 자신의 재능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이나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 다 읽은 책 등을 마련해 이웃과 나누는 기회였다. 장터 활동은 초등학교 '내 이웃 이야기' 과정의 일환으로 나눔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계획·준비하고, 경제활동 중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우며, 발생한 수익금을 이웃과 나누는 경험이다.

교실 책상위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샌드위치, 떡볶이, 고구마튀김, 만두, 딱지, 블록, 인형들이 줄을 서있고, 학생들의 손마디에는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가 들렸다. 몇 백원 손에 움켜진 교장선생님 역시 장터 꼬마 사장님들과의 흥정에 분주했다.

양지초등학교 전은진 교사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가게이름을 정하고,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지 결정하면서 간판과 메뉴판,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영수증도 써줍니다.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국어와 수학공부도 됐어요. 많이 사면 좀 더 준다거나 값을 깎아 주는 장면 등 스스로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며 "나에게 지켜워진 장난감이 친구에

게 가면 새로운 기쁨이 되고, 나의 재능으로 이웃이 배부를 수 있고, 자신이 번 돈을 성금으로 기부하는 등 '이웃과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평가했다.

장터에 참여한 하도담 학생은 "우리가게 이름이 별별마트라 별모양으로 꿀타래를 만들었어요. 밀가루 반죽 할 때는 손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제가 만든 걸 사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오늘 번 돈은 성금으로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라고 소감했다.



◇ 문의 : 양지초등학교(031-414-8473)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안산시의회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방문... 동반성장 방안 논의



안산시의회가 민생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현장의 날'을 운영 중인 가운데 네 번째 방문지로 10월 16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를 찾아 안산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의장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손관승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택, 전준호, 유화, 홍순목, 나정숙, 김진희 의원과 안산시 산업정책과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가 함께 했으며, 한양대 측에서는 김우승 부총장을 비롯하여 교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우승 부총장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발전전략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캠퍼스 주변 환경 및 부지 개발 ▲벤처·창업단지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단지 조성 계획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의 상생발전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신해 ▲안산 출신 학생들의 입학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한양대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협약 ▲대학병원 건립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스마트허브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방안 검토 등에 대해 발언하며, 한양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의 날 운영 이후 처음으로 지역 대학을 방문한 만큼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하며 안산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했다.

이민근 의장은 "한양대가 안산시에 자리를 잡은 지 약 40년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교의 역할과 지역사회가 바라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대화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 10월 27일까지 임시회 개최,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등 심의



안산시의회가 10월 16일, 제243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를 개최해 제244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를 열어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제244회 임시회는 10월 24일 개회해 27일까지 4일 동안 열리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2건과 보류 안건인 '안산도시공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을 포함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태천, 박은경 의원이 선임됐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짧은 회기에 비해 많은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의원연구모임, 안산희망발전소

### 청년 공간 선진 사례 파악 위한 벤치마킹 실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안산희망발전소(연구책임의원 전준호)'가 최근 청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선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안산희망발전소 소속 전준호, 김동수, 송바우나, 박은경, 나정숙, 주미희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지역 청년단체 회원 및 안산시 청년정책팀 관계자 등과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청년 공간 '무중력시대 G밸리', 은평구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시흥시의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안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무중력시대 G밸리에서는 서울시 청년 직장인 커뮤니티 형성과 청년 정책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어

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목표로 운영 중인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청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서울형 청년안정망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 수당 지급 방식과 이에 따른 관리 방식도 파악했다.

시흥시의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찾아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연수원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시흥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을 둘러보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벤치마킹이 '청년 직장인'과 '미취업 청년 지원', '청년 창업' 등 3개 부문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청년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파악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의견을 내었다.

벤치마킹에 동행한 지역 청년단체 회원들도 희망발전소 측이 방문 장소 선정에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힘을 쏟음을 높게 평가했다. 전준호 의원은 "최근 청년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청년 공간 조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벤치마킹이 '공유 공간'의 가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으며 향후 안산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

### 보육 전문가 목소리 청취... 향후 활동 방향 협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연구책임의원 유화, 이하 보육연구회)'는 지난 9월 29일 회의를 갖고 보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연구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화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의 윤석진 의원과 안산시 보육정책과,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안산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 사업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아동수와 보육시설은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보육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산시 보육정책 향상과 비전을 위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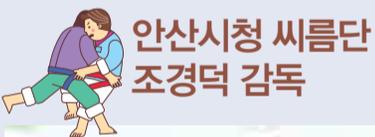
또한, 참석한 의원들은 "안산시가 종합적인 보육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불어 학부모와 보육종사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화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화두가 앞으로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산시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 발굴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②



안산시청 씨름단  
조경덕 감독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씨름단이 창단된 것은 2006년 12월 30일 일이다. 조경덕(57세) 감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다. 조경덕 감독은 초지동 둔배미가 고향인 안산 토박이다.

### "안산이 민속놀이 씨름의 선두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

부친은 별망 포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다. 배 사고로 부친을 여읜 후 온 가족이 수원으로 이주, 매산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살바를 잡았다.

경기대 씨름부 창단 멤버로 들어가 '국풍81' 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씨름이 한창 인기 있던 시절 일양약품 소속 프로 씨름선수로도 활약했다. 이후 현역에서 은퇴하고 잠시 식당 운영 등 자영업에 몸담기도 했지만 씨름과의 연은 끊지 않았다. 경기도민체육대회에서 진행을 맡았고, 고향인 안산 씨름선수들에게 자연스럽게 코치를 해줬던 것. 이후 화랑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씨름부 코치로 활동하면서 안산시 공무원으로 15년 동안 근무했다. 함께 안산시청 씨름단을 이끌고 있는 김기백 코치는 당시 조 감독의 제자로, 선수로 입단해 뛰다가 올해 코치가 된 경우다.

2006년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씨름부가 생긴 것은 프로팀 출신으로 고향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조 감독의 활동이 토대가 됐다. 창단 당시 6명이었던 선수들은 현재 9명으로 늘어나 일반대회·민속대회·단오대회·천하장사 등 씨름의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용장급 1위, 백마급 1위, 장사급 3위, 경장급 1위, 청장급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조경덕 감독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씨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씨름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즐겨온 민속놀이로 어른, 청년, 어린이 등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옛 지위를 회복하도록 안산시가 민속전래놀이 씨름의 선두고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태아와 나누는 자궁대화법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꾸미는 것은 누구나 한결같이 바라는 소망이다.

자기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임신으로 배가 불러 오게 되면 새로 태어날 내 아이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때론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신부들이 갖는 가장 공통된 고민은 자연유산이 되거나 기형아를 낳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임신 중 태교에 관심이 높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聰明한 아이를 낳는다는 믿음이다. 반면, 경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갈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

임신 중에 왈츠나 모차르트 같은 가볍고 밝은 음악을 들으면 좋다. 음악을 들는 동안 불안과 초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뱃속 태아의 감정도 편안해진



다.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볍게 눈을 감고 건강한 아이와 즐겁게 지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잘 자라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태교는 엄마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남편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임신기간 동안 아내와 태아를 위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의무다. 산모의 마음이 편해야 태아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야 태어날 아이도 침착한 아이가 될 것이다.

남편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태아와 대화를 하는 '자궁대화법'이다. 출퇴근 때 산모 배에 인사를 하거나, 저녁식사 후 산모가 잘 모르는 부분(예를 들면 과학이나 기계의 원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제 생활 속에서 물건을 만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산수에 대해 말해주면 그 사고과정이 아이의 뇌를 자극하여 지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옛 선조들은 "임산부는 부정한 짓을 멀리하고 올바른 것만 보며 생각하라"고 했다.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안성탁

## 단원보건소

### 보건복지부 공모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선정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2017년 보건복지부사업 공모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했다.

단원보건소는 신길동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 지난 5월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및 건강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7월에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현지 실사를 통해 전국 11개소 중 3개소를 지난달에 최종 확정했다.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유지인 신길동 1384-11번지 813.5㎡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76㎡로 내년 착공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공단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주제로 건립되는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측정부터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관리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해 만들어가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건재 소장은 "주민밀착형 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역할을 진료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해소해 신길동 주민 및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단원보건소(031-481-2556)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 건강 먹거리

11월

굴

### 굴의 효능

- 아이 성장 및 빈혈예방 효과 : 철분, 구리, 아연, 칼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아이 성장에 좋고 빈혈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 콜레스테롤 개선 및 다이어트 효과 :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칼로리와 지방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 맛있는 굴을 고르는 방법

- 껍질을 짝 다문 것이 싱싱합니다.
- 껍질을 간 굴은 살이 등그스름하고 통통하게 부풀어 있고, 가장자리의 검은색이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 도매시장의 굴 가격(2017.10.18(수)기준) : 1.6kg(1box) 17,000원(매일 거래가격 변동됨)

### 굴 요리 종류

- 생굴, 굴 구이, 굴 찜, 굴 국밥, 굴 무침, 굴 전, 굴 김치, 굴 소스 등.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의 우유" 굴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이자 살인행위



음주운전은 무면허, 과속, 뺑소니운전과 더불어 교통범죄의 4악(惡)이라고 불린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비용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통계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적발 25만 건, 사망자 640명,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120만 명에 이른다. 1인당 술 소비량은 12.3리터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를 범죄로 보기보다는 과실과 실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온 국민을 공분과 슬픔에 빠뜨렸던 ‘크림빵 아빠’ 사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고 파괴했다.

프랑스에서는 술을 마실 때, 일행 중에 귀가책임자를 정해 가게에서 팔찌를 채워주며 술 대신 음료수와 상품을 제공한다. 미국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

다(Drinking)’는 의미의 D스티커나, 교도소 쇠창살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일본은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하게 처벌하고 있다. 호주는 신문에 음주 운전자의 실명을 게재하며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일부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33%가 최근 5년 사이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후 처벌이 미약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행위’보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결과’를 가지고 음주운전 자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분명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전영태 경위(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 늘 감사한 선생님께 직접 편지를 써보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몸이 안 좋다며 누워 있었다. 급식시간에 밥을 먹다가 교실 바닥에 음식물을 토했다는 것이다. 아이 말을 듣는 순간 그걸 누가 어떻게 치웠을 지가 걱정됐다. “선생님이 다 치우셨어요. 휴지로 해서 손으로 다 치워 주셨고, 저를 양호실에 데려다 주셨어요. 체한 거 같으면서요. 양호실에 가서 약 먹고 괜 찮아졌어요.” 아이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께서서는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겠구나’ 싶으면서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릴까?’ ‘바쁘실 텐데 문자를 드릴까?’ 하지만 둘 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찾아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다. 결국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다. 그 참에 예

전의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다. 현장학습 때 아이의 가방을 들어 주셨던 일, 체육시간에 다쳤을 때 보듬어 주셨던 일, 실내화를 잃어버렸을 때 함께 찾아 주셨던 일 등에 대해 차례로 적어 나갔다. 그동안 아이를 통해 들었던 선생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모든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

고 적었다. 하지만 다 쓴 편지를 아이 편에 보내려니 자칫 다른 아이들이 ‘봉투’로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학교 주소를 찾아 적고, 우표를 붙여 선생님께 부쳤다. 그리고 며칠 후, 선생님께서 아이 편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보내주셨다. “학부모님한테 편지 받아본 게 얼마 만인지 싶어 너무나 깜짝 놀랐고, 손글씨로 쓴 편지가 너무나 정감이 갔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나 또한 선생님이 적어주신 짧은 답장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이지 말보다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훨씬 더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가 아닌 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 모두 다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같은 분들일 것으로 믿기에 안심이다. 늘 감사하다.

• 남보라(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 소와 사자의 사랑이야기



누구나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물론 조금은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때가 그리웠다.

아마도 14년 전 내가 한국에 온지 3년쯤 되던 해, 내가 전자회사 수입검사 반장을 할 때였다. 당시 총 1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5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중국동포 4명과 러시아에서 온 직원 한명이었다. 하루는 직원 중 한국인 세 명이 관리자들의 편애를 문제 삼아 싸움을 걸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결국 회사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화해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A 과장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다.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다. 둘은 너무 사랑하기에 결혼을 하게 됐다. 사자는 부지런한 소를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육식을 많이 잡아다 주었고 소는 사자를 위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베다 주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고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다. 둘의 참을성은 한계가 되어 다투게 되고 끝내 헤어지게 된다. 그때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였다.”

그 후 A 과장도 세 친구도 회사를 떠났고 나도 그만뒀다. 그 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당시 싸움을 걸었던 친구 한 명이 ‘미안했다’고 했으며 사과를 전해왔다.

하지만 우리 이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했던 것 같다. 그때 그 과장의 성은 남 씨였고 얼굴이 조금 검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때 그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으며, 만나진 않지만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체크하고 있다. 그중에 그때 그 친구도 있는데, 나는 가끔 그 친구의 글을 보며 멀리서나마 묵묵히 응원하곤 한다.

(이 글은 안산시문화지원본부에서 발간한 ‘수기집’에 실린 것으로,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글쓴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함)

• 김명자(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



- ◇ 주제 : 2017 다(多)문화! 다(多)함께!
- ◇ 일시 : 10. 29.(일) 12:30 ~ 16:30
- ◇ 장소 : 안산시 문화광장 (단원구 광덕대로 157)
- ◇ 내용 : 세계전통무용공연, 다문화체험 등
- ◇ 문의 : 경기도 다문화지원과 (031-8008-3351)

### 에너지 지방화 시대

분권 확대를 위한 안산에너지비전 2030심포지엄



- ◇ 일시 : 2017. 11. 15.(수) 14:00~17: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훈련기간 : 2017.10.30.~11.3. (5일간)
- ◇ 훈련주관 :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
- ◇ 훈련내용 :
  - 전 시민 참여 체험형 훈련 실시
  -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훈련 실시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 실시
- ◇ 문의 :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031-481-3119)

###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이전 안내

2017. 10. 30일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다음과 같이 이전합니다.

구분	현재 청사	이전 청사
주소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 1836-8)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 1길 10 (대부북동 1935-1)
업무시간	2017. 10. 27.(금) 18:00까지	2017. 10. 30.(월) 9:00부터
문의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031-481-6983)	



### 구룡체육관 재개장 안내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완료로 재개장일 및 대관접수를 알려드립니다.

- ◇ 재개장일 : 2017. 11. 1.(수)
- ◇ 대관신청 :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 문의전화 : 031-417-5013~4(감골시민홀)

### 상록구여성합창단

#### 정기연주회 <Memorize>



- ◇ 일시 : 2017. 11. 7.(화) 19: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 공연내용 : 7080 Memorize 주제로 한 노래(합창 듀엣, 솔로)
- ◇ 공연료 : 전석 무료 (공연 1시간전부터 선착순 배포)
- ◇ 문의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031-481-3119)

### 919취업광장

- ◇ 대상 : 전계층
- ◇ 일시 : 2017. 11. 22.(수) 14:00 ~ 16:00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882)

### 제 4회 안산시 한책 독서 대토론회

쉽게 재미있는 토론방식으로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일시 : 2017. 11. 8.(토) 10시~13시
- ◇ 대상 : 성인 100명
- ◇ 장소 :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 읽을 책 : 고양이를 잡아 먹은 오리 <김근우>
- ◇ 접수 : 셋별도서관(031)492-2707  
모락모락작은도서관(070)8253-3209  
중앙도서관 http://lib.iansan.net
- ◇ 주관 : 안산의제21 도서관 특별분과  
안산작은도서관 협의회
- ◇ 주최 :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의제21

### 「2017년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사업개시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17. 10. 23.(월) ~ 11. 19.(일)까지  
200명 선착순 접수
-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센터 (www.gsbdc.or.kr) 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교육일시 : 2017. 11. 21.(화) ~ 11. 22.(수)  
10:00~17:00 (12시간)
- ◇ 문의 : GSBA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

안산시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은 무료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메일 \_bravo@iansan.net
- 전화 \_ 031-481-2042

### 책 읽는 안산 / 1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자연과 생태 이야기』



#### 동물과 식물 이름에 이런 뜻이?!

저자 노정임 / 출판사 철수와영희

이 책은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황소, 호랑이, 지렁이, 비둘기, 진달래, 무궁화 등 38종의 동물과 식물 이름의 어원을 살펴봄과 동식물의 생태와 함께 동식물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알려준다.

동식물을 가깝게 느끼고 자연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의 이름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한다.



####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저자 박종무 / 출판사 리수

수의사인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문체로 양육강식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생명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책이다. 이 책은 공존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온 양육강식의 현실을 파헤쳐 일그러진 우리의 생명구도에 대한 인식과 대안을 공유한다.



#### 나를 부르는 숲

저자 빌 브라이슨 / 출판사 동아일보사

뉴욕타임스에 3년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라는 평을 듣는 저자가 미국 애팔래치아 트레일(AT)에 도전한 종주 기록이다. AT는 미국 동부를 관통하는 2,100마일의 등산로인데, 우리가 치면 백두대간에 해당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게 하는 고요한 원시림과 반짝이는 호수, 끝없이 이어진 산과 길. 그러나 꿈의 습격이나 예상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찬 대자연의 품속에 안겨서 6개월 이상 걸어야 종주를 마칠 수 있다.